

국립국어원 2009-01-7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65-01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새터민들의 표준말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발음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새터민들의 발음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각 방언이 표준말과 어떻게 다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터민들이 익히기 힘들어하는 발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 발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발음 실태 조사는 40명의 새터민 제보자를 대상으로 분절음, 음운 규칙, 성조, 억양 범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출신지별로 서북, 육진, 동북 세 방언권으로 나누어 발음을 비교하려고 했으나 출신지 분포 자체가 동북 방언 지역에 편향되어 있는 관계로 동북 방언 지역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발음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 발음에서 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 /ㄱㅈㅊ/이 일부 새터민들에게서는 치경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 ② 새터민들의 /어, 오/, /으, 우/ 발음은 표준 발음처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 ③ 새터민들은 구개음화하여 발음하지 않고 /ㄷ, ㅌ/을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 ④ 새터민의 발음에서 ㄴ 첨가 현상이 활발하지 않다.
- ⑤ 북한어 표기의 영향을 받아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 등이 실현되는 등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⑥ 함경 방언의 운율 유형은 고저 악센트로 표준어의 운율 유형과 다르다.

⑦ 이 외에 모음 사이에 오는 /ㅇ[n]/을 [nn]으로 발음하고 /에, 애/를 뚜렷이 구별하는 등 표준어 화자의 발음과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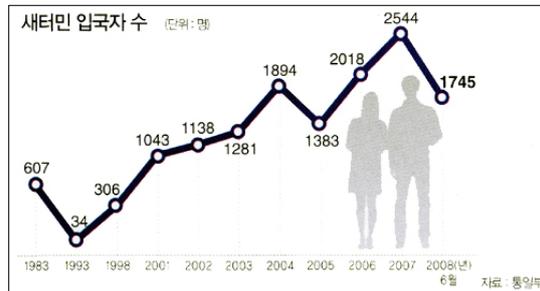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음 교재와 온라인 콘텐츠를 /으, 우/의 발음(끝? 꼴?), /어, 오/의 발음(언 감자? 온 감자?), /스/의 발음(시장? 식장?), 구개음화(마디?, 마지?), ㄴ 소리 첨가(소립? 슬립?), 두음 법칙(락성대?, 낙성대?), 단어의 억양과 문장의 억양 등 총 8개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단원마다 단어, 문장, 대화 단위로 단계적인 연습을 통해 목표 발음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어: 함경 방언, 모음 구별, 구개음화, 두음 법칙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지난 1999년 이후로 급격히 늘어난 새터민의 수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1만 5천 명을 넘어섰으며, 새로 입국하는 새터민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새로 입국하는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10주간 생활하면서 360시간의 사회 적응 훈련을 받는데, 언어 교육의 비중은 전체 프로그램의 6% 수준인 21시간에 불과해 충분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발표된 국립국어원의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북한 방언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어 차이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껴 표준말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표준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체계적으로 표준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표준 발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들의 언어를 서북, 동북, 육진 방언 등 세 개의 방언권으로 나누고, 각 방언권별로 발음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각 방언이 표준말과 어떻게 다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터민들이 가지고 있는 발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 발음 훈련 프로그램(단행본 교재와 시디 음성교재)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필요성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표준말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의 표준말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행본 교재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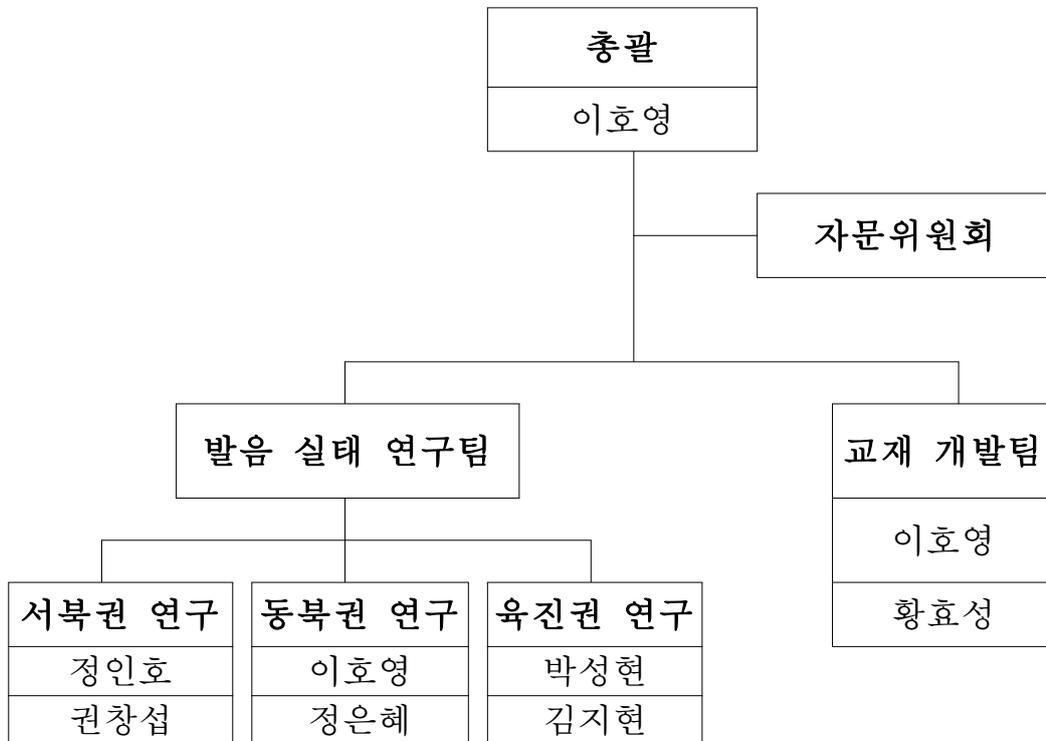
특히 새터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발음 오류를 진단할 수 있는 발음 진단 문제들과 청취 훈련을 통해 자신의 발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온라인 콘텐츠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발음 교육은 전문가와의 면대면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면대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디 음성 교재와 인터넷 온라인 학습만으로도 발음 교정이 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II. 새터민 방언권별 발음 실태 조사

1. 전체 진행

1) 연구 및 개발팀 구성

작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발음 실태 연구팀과 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였다.



2) 연구 및 개발 진행 일정

발음 실태 조사와 교재 개발은 대체로 계획했던 일정대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다만 녹음 일정은 제보자 섭외가 지연된 관계로 8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마무리되었다.

월 \ 작업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헌 조사	⇒	⇒						
조사 항목 선정		⇒						
녹음				⇒	⇒			
발음 실태 분석				⇒	⇒	⇒	⇒	
단행본 교재 집필					⇒	⇒	⇒	
시디 음성 교재 제작							⇒	⇒
중간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작성								⇒

발음 실태 조사 분석 일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일시	내용	장소
2009년 7월	각 팀 책임자 모임	
2009년 8월 5일	발음 실태 조사 예비 조사	공릉새터민정착지원 센터
2009년 8월 17일 ~ 8월 21일	발음 실태 조사용 1차 녹음	공릉새터민정착지원 센터

2009년 8월 26일	1차 녹음 분석 회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2009년 8월 17일 ~ 8월 25일	1차 녹음 분석 진행	
2009년 8월	중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국립국어원
2009년 9월 21일 ~ 9월 23일	발음 실태 조사용 2차 녹음	공릉새터민 정착지원 센터
2009년 9월 24일 ~ 11월 30일	2차 녹음 분석 진행	
2009년 12월 1일 ~ 12월 20일	전체 녹음 분석 정리	
2009년 12월 28일	최종 보고서 제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일시	내용	장소
2009년 8월 18일 ~ 8월 25일	새터민 발음 교육용 자료 분석	
2009년 8월 26일 ~ 10월 10일	새터민 발음 교육용 교재 초안 집필	
2009년 10월 11일 ~ 12월 21일	온라인 콘텐츠 초안 완성	
2009년 12월 22일 ~ 12월 14일	온라인 콘텐츠 최종 검수	
2009년 12월 28일	온라인 콘텐츠 완성 본 제출	

단행본 교재 완성본 제출	온라인 콘텐츠 DVD 완성 제출
------------------	----------------------

2. 발음 녹음 및 기초 분석

새터민의 발음이 표준말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새터민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새터민을 출신지별로 서북, 육진, 동북 세 방언권으로 나누어 발음을 비교하려고 했으나 출신지 분포 자체가 동북 방언 지역에 편향되어 있는 관계로 각 방언권별로 고른 제보자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방언권별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동북 방언 지역 출신이 새터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¹⁾ 북한 지역 언어를 통틀어 남한 표준말과 비교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 발음 녹음에 참여한 새터민 제보자는 총 40명이었다.

1) 2008년 12월말 현재 새터민의 출신지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출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구분	함북	함남	평양	남포	평남	평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기타	계
누계(명)	10,230	1,520	371	89	553	479	100	767	291	224	313	120	15,057
비율(%)	68	10	2	1	4	3	1	5	2	1	2	1	100

1) 발음 녹음

□ 제보자

○ 제보자 섭외

서울시 노원구 소재 공릉새터민정착지원센터에서 사회 적응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을 받는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제보자를 모집했다. 발음 실태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는 총 40명이었다.

	녹음 일시	장소	인원(명)
예비 조사	2009년 8월 5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새터민정착지 원센터	2
1차 조사	2009년 8월 17일		10
	8월 18일		9
	8월 19일		6
	8월 21일		8
2차 조사	9월 23일		5
	합계		40

이들 40명 중 1명의 녹음자료는 녹음 상태 불량으로 분석할 수 없어 제외하고 모두 39명의 발음 녹음 자료를 대상으로 발음 실태 분석을 실시했다.

○ 구성

새터민은 남한의 언어를 새로 습득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언어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정착 시기가 늦을수록 북한 언어 습관을 좀 더 충실하게 보여 줄 것이라 가정하고 제보자의 남한 정착 시기를 녹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자 했다. 입국 시기에 따라 제보자의 분포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남한 거주 기간	인원	비율
3개월 미만	2명	5.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명	17.9%
6개월 이상 1년 미만	21명	53.9%
1년 이상	4명	10.3%
2년 이상	5명	12.8%
전체	39명	100%

표 1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제보자 분포

제보자의 75% 이상이 입국한 지 1년 미만의 경우였고 2년 이상의 경우에는 한 명만이 5년 남짓 남한에 거주해 왔고 나머지는 4명은 2년 반 안팎이었다.

연령별 제보자 분포를 보면 2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연령대별로 제보자 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으나 40대까지 합하면 80%에 가까워 가장 활발한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 50대 이상의 경우 한 명이 71세였고 50대가 2

명 60대가 2명이었다.

연령대별	인원	비율
10대	3명	7.7%
20대	12명	30.8%
30대	12명	30.8%
40대	7명	17.9%
50대 이상	5명	12.8%
전체	39명	100%

표 2 연령에 따른 제보자 분포

성별 분포로는 여성이 28명으로 전체의 71.8%였고 남성은 11명으로 여성의 절반에 못 미쳤다. 방언권에 따른 제보자 분포는 아래와 같다.

방언권	인원	비율
동북	23명	59%
서북	6명	15.4%
육진	10명	26.6%
전체	39명	

표 3 방언권에 따른 제보자 분포

2) 이는 북한 이탈 주민 전체의 연령별 구성과 일치하는 분포이다. 통일부 제공 북한 이탈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월 현재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2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61%이고 40대까지 포함하면 75%에 이른다.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명)	575	1,833	4,251	5,050	2,183	661	718	15,271
비율(%)	4	12	28	33	14	4	5	100

방언권별로 20명씩 총 60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발음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육진과 서북 방언권의 제보자는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웠다.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 선정 기준

북한 지역의 방언에 대한 연구 문헌에 나타난 북한어의 발음 특징에 근거하여 새터민의 발음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아래와 같을 것이라 예측했다.

- (1) 남한 말의 구개 마찰음과 파찰음을 치조음으로 발음할 것이다.
- (2) 모음 '오'와 '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 (3) 모음 '으'와 '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 (4) 자음 '스'의 구개음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5) 구개음화, ㄴ-첨가, 두음 법칙, 경음화 등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 (6) 함경도 방언의 경우 성조로 인해 표준말의 억양과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 조사 항목 선정

발음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 항목은 크게 분절음, 음운 규칙, 성조, 억양 범주로 나누었고 각 범주별로 어휘와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1) 분절음

가. 자음

개다, 캐다, 깨다
배다, 패다, 빼다
대다, 태다, 때다
자다, 짜다, 차다, 지다, 찌다, 치다
사다, 싸다, 하다, 시름, 씨름
달나라, 돈, 무늬, 하늬바람, 다니다,
학교에 가니까

나. 모음

① 단모음

이, 에, 애, 아, 오, 우, 으, 어
블, 별, 게, 개, 그리다, 구리다, 은, 운, 끌, 꿀
어른, 어디, 거지, 거의, 거기, 고기,
외, 괴, 쇠, 죄, 회

② 이중 모음

양념, 향기
여름, 겨울
요술, 교육, 대표
유리, 규정, 휴지
예절, 시계, 사례, 혜택
왕, 광고, 사과
원수, 권유
퀘짜, 피자
외국, 괴물
위험, 귀신
왜국, 돼지
의사, 정의, 의의, 나의 고향

(2) 음운 규칙

① 겹받침 단순화

삶, 많고, 닿지, 싫소
여덟, 짧다, 넓다, 밟다, 밟지, 밟고
넓죽하다, 넓둥글다
웁다, 기슭, 맑다, 맑게, 묵고, 엮거나

② 격음화

말형, 법학, 입학, 육학년

③ 연음 규칙

무릎을, 밭에서, 끝을, 젓이
꽃이다, 부엌에서, 값이, 흙이, 통닭을, 여덟이

④ 이+어, 위+어

이겨, 비벼, 다쳐, 저, 쩌
뛰어, 쉬어, 끼어, 휘어

⑤ ㄴ-첨가

솜이불, 흙이불, 검열, 금융
월요일, 일요일, 필요, 활용, 절약

⑥ 두음 법칙

로동, 력사
녀자, 넘려하다

⑦ 구개음화

기름, 길, 학교, 형, 힘, 정거장
밭이, 말이, 끝이, 묻히다, 걷히다

⑧ 전설 모음화

지팡이, 곰팡이, 어미, 떡이다, 속이다, 쫓기다
죽이다, 뜯기다, 사람이, 듣기, 찾기, 주기

⑨ 모음 조화

바람 막아! 괴로워서 못 살겠다.
고마워요. 반가워요.
이거 받아! 나 이거 알아!
배워, 바뀌

⑩ 모음 사이의 /ㄴ, ㅇ /

병아리, 강아지, 방에 들어간다.
땅을, 콩을

○ 성조

L: 닭, 팔, 밭, 집, 콩
H: 칼, 코, 꿀, 꿈, 잎
HL: 구름, 나이, 대추, 안개, 우산, 파리
LH: 가슴, 거미, 그늘, 나라, 내일, 노래
LL: 나물, 메밀, 바람, 보리, 손톱, 하루
LLL: 손가락, 진달래, 가락지, 휘파람

LLH: 고사리, 바가지, 바구니, 주머니
LHL: 가운데, 꼬꼬리, 사나이, 꼬끼리
HLL: 고양이, 무지개, 사마귀(피부), 도깨비
LLHL: 아주머니
LHLL: 아주머니
LHHL: 할머니
LLLH: 비렁뱅이, 아부재기(고함), 손가락
LLHL: 눈망울, 두루마기

○ 억양

(1) 평서문

(추측) 그 돈으로는 안 될 거야.
(감사)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경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습니다. 올라갑니다.
(칭찬) 아주 잘했어.
(약속) 이따 전화할게.
(진술) 나 미국에 갔다 왔어.
(반어) 잘하는 짓이다.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사과) 늦게 와서 미안해.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비난) 이게 다 네 책임이야.

(2) 예-아니요 의문문

- (단순 질문) 여기 신용 카드로 결제되나요?
- (추측) 수업 아직 안 끝났을걸?
- (의향 확인) 나 집에 가라구?
- (확인) 너 방금 일어났지?
- (질책) (지각한 사람에게) 지금 몇 신지 알아요?
- (인사) 안녕하십니까?
- (의아) 갑자기 웬 칭찬이야?
- (불평) 이것도 모르니?
- (조롱) 그것도 옷이라고 입고 다니니?
- (권유) 이것 좀 드시겠어요?

(3) 의문사 의문문

- 오늘 몇 시에 퇴근해?
- 학생들이 왜 이렇게 떠드니?
-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 뭐 먹을래?

(4) 청유문 · 명령문 · 감탄문

- (청유)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자
- (질책) 그만 좀 먹어라.
- (지시) 당장 이 방에서 나가.
- (제안) 이것 좀 드세요.

(감탄) 정말 굉장하구나.

(반어 감탄) (탐탁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에게) 참 잘하는군.

(칭찬) 참 잘했구나.

(인사) 참 오랜만이네요.

○ 자유 발화

(1) 서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을 언어에 초점을 맞춰 말씀해 주세요.

□ 발음 녹음

녹음에는 전문가용 디지털 녹음기인 Marantz PMD 670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 Shure WH30XLR을 사용했다. 자유 발화를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은 조사지에 제시된 어휘와 문장을 보통 발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 녹음했다. 본격적인 조사 항목 낭독에 앞서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제보자가 녹음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분절음 조사 항목은 각 항목당 총 6회 반복 낭독하도록 했고 음운 규칙과 성조, 억양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은 1회 낭독하도록 했다. 분절음은 2회 연속 낭독한 후 음운 규칙, 성조와 억양 등 다른 범주의 조사 항목을 낭독하고 다시 분절음 조사 항목을 2회 연속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보자 1인이 발음 녹음을 모두 끝내는 데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2) 발음 기초 분석

발음 분석은 청취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분석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표를 이용해 청취 분석을 진행했다.

(1) 분절음

	단어	보기
1	씨름	1)구개음 2)치조음
2	개다	1)개다 2)게다
3	찌다	1)구개음 2)치조음
4	벌	1)벌 2)볼
5	싸다	
6	게	1)게 2)개
7	캐다	1)캐다 2)케다
8	은	1)은 2)운
9	배다	1)배다 2)베다
10	개	1)개 2)게
11	꽤다	1)꽤다 2)페다
12	볼	1)볼 2)벌
13	베	1)베 2)배
14	때다	1)때다 2)떼다
15	소리	1)소리 2)서리
16	자다	1)구개음 2)치조음

17	시름	1)구개음 2)치조음
18	운	1)운 2)은
19	치다	1)구개음 2)치조음
20	빼다	1)빼다 2)떼다
21	대다	1)대다 2)테다
22	꿀	1)꿀 2)굴
23	서리	1)서리 2)소리
24	태다	1)태다 2)테다
25	사다	
26	꿀	1)꿀 2)굴
27	짜다	1)구개음 2)치조음
28	깨다	1)깨다 2)계다
29	배	1)배 2)베
30	차다	1)구개음 2)치조음
31	지다	1)구개음 2)치조음
1	나는 '이'라고 했다.	
2	나는 '어'라고 했다.	1)어 2)오
3	나는 '위'라고 했다.	1)이중 모음 위 2)단모음 위 3)단모음 이
4	나는 '애'라고 했다.	1)애 2)에
5	나는 '외국'이라고 했다.	1)이중 모음 외 2)단모음 외 3)단모음 이
6	나는 '우'라고 했다.	1)우 2)으
7	나는 '에'라고 했다.	1)에 2)애
8	나는 '바위'라고 했다.	1)이중 모음 위 2)단모음 위 3)단모음 이
9	나는 '아'라고 했다.	
10	나는 '오'라고 했다.	1)오 2)어
11	나는 '참외'라고 했다.	1)이중 모음 위 2)단모음 위 3)단모음 이
12	나는 '으'라고 했다.	1)으 2)우

음운 규칙

	단어	보기
1	삶	1)삼 2)쌘
2	달나라	1)달라라 2)달나라
3	돈	
4	무늬	
5	다니다	
6	양념	
7	대표	1) 대표 2) 대포
8	여름	1)너름 2)여름
9	넓다	1)널따 2)넙따 3)넓따
10	향기	1)향기 2)향기
11	교육	1)교육 2)교육
12	유리	1)유리 2)우리
13	혜택	1)혜택 2)혜택
14	휴지	1)휴지 2)후지 3)수지
15	예절	1)예절 2)예절
16	하늬바람	1)하늬바람 2)하늬바람
17	시계	1)시계 2)시계
18	규정	1)규정 2)구정
19	왕	1)왕 2)양

20	사례	1)사례 2)사례
21	광고	1)광고 2)강고
22	사과	1)사과 2)사가
23	원숭이	1)원숭이 2)언숭이
24	퀘짜	1)퀘짜 2)게짜
25	싫소	1)실쏘 2)실소
26	여덟	1)여덟 2)여덜 3)여덧
27	권유	1)귀뉴 2)권뉴 3)거뉴 4)건뉴
28	괴짜	1)퀘짜 2)게짜 3)괴짜
29	여자	1)녀자 2)여자
30	위험	1)위험 2)이험
31	왜놈	1)왜놈 2)애놈
32	귀신	1)귀신 2)기신 3)구신
33	돼지	1)돼지 2)대지
34	정의	1)정의 2)정이 3)정으
35	밟다	1)밟따 2)발따 3)밟다
36	맷형	1)마텡 2)마덩
37	짧다	1)짹따 2)짹따 3)짧따
38	의사	1)의사 2)이사 3)으사
39	턱받이	1)턱빠지 2)턱빠디
40	입학	1)이팍 2)이박

41	밟고	1)밟꼬 2)밭꼬 3)밟꼬
42	죽이다	1)쥐기다 2)주기다
43	끝이 보인다	1)꼬치 2)꼬티 3)꼬시
44	무릎을	1)무르블 2)무르플
45	꽃이 피다	1)꼬치 2)꼬티 3)꼬시
46	부엌에서	1)부어게서 2)부어케서
47	숨이불	1)숨니불 2)소미불
48	검열	1)검널 2)거멸
49	기습	1)기습 2)기슬 3)기슭
50	맑다	1)막따 2)말따 3)따따
51	밭에서	1)밭 2)밭 3)밭
52	넓죽하다	1)넙죽 2)넙죽 3)넙죽
53	맑게	1)막게 2)말게 3)따게
54	속이다	1)쉐기다 2)소기다
55	육학년	1)유강년 2)유강년
56	금융	1)금농 2)그몽
57	쫓기다	1)쨌끼다 2)쨌끼다
58	힘	1)심 2)힘
59	개성역	1)개성년 2)개성역
60	뭍고	1)뭍꼬 2)뭍꼬 3)뭍꼬
61	굳이 따라갔다	1)구지 2)구디

62	법학	1)버팍 2)버박
63	겨울	1)저울 2)제울 3)겨울 4)게울
64	요술	1)뇨술 2)요술
65	묻히다	1)무치다 2)무티다
66	월요일	1)월료일 2)위료일
67	을다	1)읍따 2)을따 3)을따
68	길	1)질 2)길
69	학교	1)해교 2)하교
70	필요	1)필료 2)피료
71	훈이불	1)훈니불 2)호디불
72	활용	1)활룡 2)화룡
73	노동	1)로동 2)노동
74	역사	1)력사 2)역사
75	기름	1)지름 2)기름
76	형	1)성 2)형
77	말이	1)마지 2)마디
78	견히다	1)거치다 2)거티다
79	지팡이	1)지팽이 2)지팡이
80	곰팡이	1)곰팽이 2)곰팡이
81	어미	1)에미 2)어미
82	떡이다	1)메기다 2)머기다

83	듣기	1)디끼 2)드끼
84	찾기	1)채끼 2)차끼
85	병아리	1)뺩아리 2)병아리
86	뜯기다	1)띠끼다 2)뜨끼다
87	강아지	1)강아지 2)강아지 3)가아지
88	방에 들어간다.	1)방에(○중첩) 2)방에(○하나)
89	땅을 짚었다	1)땅을(○중첩) 2)땅을(○하나)
90	가을걷이	1)가을거지 2)가을거디
91	사람이 왔다	1)사래미 2)사라미
92	바람 막아!	1)마가 2)마거
93	괴로워서 못 살겠다.	1)괴로와서 2)괴로워서
94	고마워요.	1)고마와 2)고마워
95	반가워요.	1)방가와 2)방가워
96	이거 받아!	1)바다 2)바더
97	나 이거 알아!	1)아라 2)아러
98	이 책 바꿔 주세요.	1)바짜(까) 2)바꿔(꺼)
99	영어 배워!	1)배와 2)배워
100	값이 비싸다	1)가비 2)갑씨
101	겉이 많다	1)거비 2)겉씨
102	씩이 노랗다	1)싸기 2)씩씨
103	흙이 쌓여 있다	1)흐기 2)흘기

104	닭을 먹었다	1)다기 2)달기
105	나이가 여덟이다	1)여더비 2)여덜비 3)여더리
106	싸움에서 이겼다	1)이겨따 2)이게따 3)이기따
107	축구 경기에서 졌다	1)저따 2)저따 3)제따 4)지따
108	밥을 비벼 먹었다	1)비벼 2)비버 3)비베 4)비비
109	다리를 다쳐서	1)다쳐서 2)다쳐서 3)다쳐서 4)다치서
110	학교까지 뛰어갔다.	1)뛰어(여) 2)떠어(여) 3)떠
111	쉬어 가는 집	1)쉬어(여) 2)시어(여) 3)셔
112	나무가 휘어 있다	1)휘어(여) 2)히어(여) 3)혀
113	젓이 나왔다.	1)저지 2)저시
114	나의 고향	1)나의 2)나에 3)나으 4)나이
115	사람이 많고	1)만코 2)만꼬
116	신발이 닳지 않았다.	1)달치 2)달찌
117	학교에 가니까	1)해꼬에 2)하꼬에
118	끝을 보았다.	1)꼬틀 2)꼬츨 3)꼬슬
119	염려하다	1)념녀 2)렴녀 3)렴려
120	김유진	1)김뉴진 2)기뮤진

2. 발음 분석 결과

1) 자음

□ /ㅈ ㅉ ㅊ/

표준 발음에서는 이들이 각각 경구개음 [tʃ/dʒ, tʃʰ, tʃʰ]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새터민 중의 일부는 표준 발음과 비슷하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이들을 치경음 [tʃ/dʒ, tʃʰ, tʃʰ]로 실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의 경우에도 표준 발음보다는 약간 앞쪽(경구개음과 치경음 사이)에서 발음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경음의 실현은 방언적 변이음이라기보다는 모(母)방언 및 문화어 발음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 방언과 함북 육진 방언이 /ㅈ, ㅉ, ㅊ/을 치경음으로 실현시키는 대표적인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들 방언권 출신의 새터민들이 치경음으로 실현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치경음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자다	17.9	17.4	33.3	10
짜다	28.2	17.4	33.3	50
차다	5.1	4.3	16.7	0
지다	12.8	8.7	16.7	20

찌다	17.9	8.7	33.3	30
치다	17.9	21.7	0.0	20

경음 /ㅈ/의 치경음 실현이 제일 많고 육진 방언권 화자의 경우 50%에 이르는 화자가 /ㅈ/를 치경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격음 /ㅊ/는 치경음 발음이 극소수이고 육진 방언권 화자 중에서는 /ㅊ/를 치경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었다.

□ /ㅅ ㅆ/

표준 발음에서 /ㅅ, ㅆ/은 후행 모음의 종류에 따라 음성이 다르다. 즉 /이/(또는 /j/) 모음 앞에서는 경구개음 [ç, ç']로 실현되며 기타 모음 앞에서는 치경음 [s, s']로 실현된다. 새터민들의 발음도 /이/ 이외의 모음 앞에서는 모두 표준 발음과 동일하게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 모음 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실현시키는 화자들도 있는 반면에 치경음으로 실현시키는 화자의 비율도 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새터민의 모방언 및 문화어 발음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치경음 실현 비율을 볼 때 새터민 발음의 징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치경음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시름	30.8	26.1	16.7	50
씨름	56.4	47.8	83.3	60

평음 /ㅅ/보다는 경음 /ㅆ/의 치경음 실현이 많고 서북 방언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방언권별로 비교하면 육진 방언권의 화자가 /ㅅ/와 /ㅆ/ 모두 전체 평균 이상이고 50% 이상 치경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 /ㅇ[n]/

표준 발음에서 /ㅇ/은 모음 사이에서 [ŋ]으로 실현된다. 물론 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에는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즉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보기도 하고 후행 음절의 두음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음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ㅇ/은 두 모음 사이에서 하나의 [ŋ]만으로 실현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의하면 새터민의 상당수가 이를 [ŋŋ]으로 발음하고 있다. 즉 모음 사이의 /ㅇ/이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도, 후행 음절의 두음으로도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ㅇ/을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뚜렷하게 발음하려는 의식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함경 방언(육진 방언 포함)과 평안 방언은 모음 사이에서 /ㅇ/의 약화·탈락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방언이다. 새터민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발음과 표준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여 의식적으로 모음 사이의 /ㅇ/을 강하게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ŋŋ]의 발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일종의 과도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발음 경향은 형태소 내부(예: 강아지)보다 형태소 경계(예: 방-에, 방-을)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ŋŋ]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강아지	35.9	43.5	33.3	20
방-에	66.7	69.6	50	70
방-을	66.7	65.2	33.3	90

2) 모음

□ /어, 오/

표준 발음의 /어/는 그 조음 영역이 꽤 넓어서 단음일 경우는 [ʌ]로, 장음일 경우는 [a]로 실현된다. 그리고 /오/는 [o]로 실현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새터민의 /어/는 환경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a]에 가깝게 발음된다. 그리하여 비록 표준 발음에 비해 조음 영역이 좁기는 하지만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 /어/로 인식되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오/의 경우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우선 새터민의 /오/는 표준 발음과 동일하게 [o]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화자에 따라서는 저모음 [ɔ]로 발음되기도 한다. 평안 방언과 함경방언의 /오/가 [ɔ]로 실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모방언 또는 문화어 발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많은 새터민의 발음에서 이러한 [오]의 원순성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a] 또는 [ʌ]로 실현됨으로써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는 모음 /어/로 들리게 된다. 결국 새터민들에게 있어서의 /어/와 /오/의 대립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남한 방언 화자들로서는 이들의 대립을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새터민 발음의 징표가 될 수 있으며 남한 방언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어/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불	38.5	47.8	50	10
소리	33.3	34.8	50	20
틀 문장 '오'	41.0	56.5	16.7	20

어휘 발음보다는 틀 문장 '나는 '오'라고 했다' 안에서 발음한 /오/의 [어] 실현율이 가장 높다. 이것은 동북 방언 화자와 육진 방언 화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북 방언(화자 수로 전체의 15.4%) 화자의 경우 틀 문장 속에서 '오'를 [어]로 실현하는 비율이 단독 어휘 발음에서보다 낮다. 육진 방언권의 화자는 단독 어휘와 틀 문장 모두에서 /오/의 [어] 실현이 현저히 낮다.

□ /으, 우/

표준 발음에서 /으/와 /우/는 각각 [ɯ]와 [u]로 발음된다. 그리고 이 두 모음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새터민의 발음도 주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으/의 경우에 표준 발음보다는 약간 앞쪽, 즉 [ɨ]와 [ɯ]의 중간 정도에서 발음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새터민의 /으/ 발음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바가 있다. 즉 일부의 화자들은 /으/를 발음할 때 [원순성]을 가미한다는 점이다. 즉 /으/를 [ɯ]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는 /우/로 들리게 된다. 결국 '어 : 오'의 대립 상실과 마찬가지로, 새터민들에게 있어서의 /으/와 /우/의 대립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남한

방언 화자들로서는 이들의 대립을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 또한 새터민 발음의 징표가 될 수 있으며 남한 방언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으/의 [우] 실현은 육진 방언권 화자의 발음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다. 동북 방언권의 경우 동북 방언권 화자 전체의 10%에 못 미치며 서북 방언권 화자의 경우 '끝'과 틀 문장 '나는 '으'라고 했다.' 에서는 [우] 실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우]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은	30.4	8.7	16.7	50
끝	18.1	8.7	0	20
틀 문장 '으'	12.5	4.3	0	30

한편 '으 : 우'의 대립 상실은 앞서 언급한 '어 : 오'의 대립 상실과 맥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두 현상 모두 [원순성] 대립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변화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어 : 오'의 대립 상실은 [오]의 [원순성] 약화에 기인한 반면에 '으 : 우'의 대립 상실은 [으]의 [원순성] 가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두 종류의 대립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화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 /에, 애/

표준 발음의 /에, 애/는 각각 [e, ɛ]로 실현되며 분명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 방언의 젊은 층 화자들에게는 이 두

모음의 대립이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하여 표준 발음을 교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의하면 모든 새터민이 두 모음의 표준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조사자를 놀라게 하고 있다.

□ 이중 모음

먼저, j-상향이중 모음의 발음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예/는 [j]가 탈락하여 [e]로 실현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런데 표준 발음도 자음이 선행할 때에는 [je]와 [e]의 발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터민의 발음은 표준 발음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j탈락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예절	0	0	0	0
혜택	74.4	91.3	66.7	40
시계	61.5	78.3	33.3	40
사례	84.6	91.3	83.3	70

다음으로, w 상향 이중 모음 /와, 위, 왜, 외, 웨, 위[wi]/의 경우에는 w가 탈락하여 발음되는 것이 흔하다. 물론 이는 자음이 선행할 때로 한정되며 선행 자음이 없을 때에 w가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방언권별로 보면 서북 방언 지역의 화자에 비해 동북 방언

과 육진 방언 지역의 화자들이 더 많이 w 탈락을 보였다.

	w탈락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왕	0	0	0	0
위험	5.1	8.7	0	0
왜놈	0	0	0	0
원숭이	2.6	4.3	0	0
광고	52.1	52.2	33.3	40
사과	33.3	34.8	0	50
괴짜	41	34.8	33.3	60
퀘 짝	51.3	56.5	33.3	50
돼지	45.8	43.5	16.7	50
귀신	41.6	43.5	16.7	30

끝으로, /의/의 경우이다. 표준 발음에서는 선행 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의]의 발음이 실현된다. 한편 어두에서는 반드시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비어두에서는 [이]를, 그리고 소유격 조사 는 [예]를 허용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새터민의 발음과 표준 발음을 비교해 보자. 첫째, 선행 자음이 존재하면 표준 발음과 동일하게 [의]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늬바람’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새터민들이 잘 모르는 단어라는 점에서 문자에 이끌린 과도 교정의 예가 아닌 가 한다. 둘째, 어두의 ‘의’는 대다수의 새터민이 [으]로 발음하며 일부만이 [의]로 발음하고 있다. 이는 /의/ 발음에서 표준 발음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경우에 남한

방언 화자들도 적은 수만이 [의]로 발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새터민 발음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비어두의 ‘의’는 표준 발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의]와 [이]의 발음이 모두 가능한데 후자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소유격 조사의 경우에는 표준 발음 [의, 에] 이외에 [이]로 실현되는 비율이 꽤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으 : 우’의 대립이 상실된 화자들은 [으, 의] 대신에 [우, 위]를 실현시킴은 물론이다.

	실현율(%)			
	의	에	으	이
하늬바람	15.4	0	0	76.9
의사	71.8	0	69.2	0
정의	33.3	0	0	64.1
나-의	15.4	51.3	0	25.6

3) 음운 규칙

□ 구개음화

표준 발음은 형태소 경계에서 /ㄷ, ㅌ/ 뒤에 /이/가 연결될 때 /ㄷ, ㅌ/는 각각 경구개음 [ㅈ, ㅊ]로 실현된다. 그런데 새터민의 발음에서는 이러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ㄷ, ㅌ/가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새터민 화자가 속한 방언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안 방언과 육진 방언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ㄷ, ㅌ'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말이	43.6	43.5	33.3	50
턱받이	61.5	73.9	16.7	60
가을걷이	69.2	69.6	50	80
굳이	33.3	34.8	33.3	30
걸히다	30.8	30.4	33.3	30
묻히다	7.7	4.3	16.7	10
끝-이	35.9	39.1	33.3	30

발음 조사 결과를 보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양상이 방언별로 다르고 특히 어휘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턱받이, 가을걷이'등 명사형 접미사가 결합되는 어휘 발음에서는 육진 방언과 동북 방언 화자의 발음에서 /ㄷ, ㅌ/ 실현이 50%에 이른다. 그러나 부사형 접미사가 결합된 '굳이'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견히다’의 /ㄷ, ㅌ/ 실현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묻히다’의 경우 10%에 못 미치는 실현율을 보였다.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끝이’의 경우 세 방언권 화자 모두 비슷한 실현율을 보였다. 서북 방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ㄷ, ㅌ/ 실현율은 다른 두 방언권 화자의 발화보다 떨어진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ㄷ, ㅌ/가 /이/ 앞에서 구개음화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방언권, /이/의 문법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어휘와 문장을 낭독하는 녹음 방식이 제보자로 하여금 문법 경계와 형태소의 문법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결과일 수도 있다.

□ 자음군 단순화

표준 발음에서 겹받침 중의 한 자음은 음절말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 새터민의 발음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며 또한 탈락하는 자음도 표준 발음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래’과 ‘리’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표준 발음과 비교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래, 리]과 같이 자음군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래’의 경우에는 표준 발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표준 발음에서는 ‘래’에 자음 어미가 후행할 때 ‘ㄷ’이 탈락하지만 새터민의 발음에서는 상당수가 ‘ㄷ’을 탈락시키고 있다. 한편 표준 발음에서 ‘뱃-’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ㄷ’을 탈락시키는데 이 점에서는 새터민의 발음과 비슷하다. 다만 ‘뱃-고’의 경우에는 ‘ㄷ’을 탈락시키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다. 셋째, ‘리’의 경우에는 표준 발음과 큰 차이가 없다. 즉 표준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ㄱ’이 탈락하고 다른 자음이 뒤따르는 환경에서는 ‘ㄷ’이 탈락하며, 모음이 뒤따른 환경에서는 ‘ㄷ’과 ‘ㄱ’이 모

두 발음되는데 새터민의 발음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래, 리'의 자음군 단순화에 있어서 새터민 의 발음은 대부분 표준 발음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덟이다'의 경우 [여더비다] 발음이 50% 이상 나타났는데 이는 모방언의 영향이라 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의 대부분이 속하는 동북 방언과 육진 방언 은 '래, 리'의 경우에 주로 '르'를 탈락시키기 때문이다.

	실현율 (%)		
	[르]	[비] / [기]	[래] / [리]
넓다	23.1	66.7	10.3
밟다	17.9	79.5	2.6
밟고	46.2	41	7.7
짧다	12.8	79.5	7.7
넓죽하다	10.3	89.7	0
여덟이다	46.2	51.3	2.6
여덟	7.7	79.5	12.8
맑다	12.8	71.8	12.8
맑게	56.4	2.6	25.6
묻고	64.1	30.8	2.6
흙이	0	20.5	79.5
닭을	0	17.9	79.5
기슭	7.7	69.2	20.5

□ ㄴ 첨가

표준 발음에 따르면 복합어(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새터민의 발음에서도 이러한 ㄴ 첨가 현상이 존재하지만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방언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ㄴ 첨가 실현율(%)
개성역	38.5
숨이불	2.6
홀이불	20.5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ㄴ 첨가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 환경은 선행 요소가 공명음(ㄱ, ㄴ, ㅇ, ㄹ)으로 끝나고 후행요소가 'ㄱ'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남한의 경상 방언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ㄴ 첨가가 있다. 그리고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평안 방언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함경방언에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자어에서의 ㄴ 첨가는 새터민의 모방언 또는 문화어 발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 역시 방언권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ㄴ 첨가 실현율(%)
권유	82.1
검열	92.3
금융	92.3
활용	74.4
필요	59
월요일	92.3

중부 방언은 이러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방언이기에 ㄴ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검열, 금융’에 한해 ㄴ 첨가를 허용하여 각각 [거:뎡/검뎡, 그뎡/금뎡]이 가능하다.

□ 체언 어간 재구조화

표준 발음에 따르면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어간말 자음 하나가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은 새터민의 발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다만 몇몇 체언 어간의 경우에, 어간말 자음이 역사적으로 재구조화를 경험함으로써 표준 발음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언 어간의 재구조화는 남한 방언(중부 방언 포함)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흘받침의 경우 ‘ㅌ·ㅈ·ㅊ>ㅅ’, ‘ㅍ>ㅂ’, ‘ㅋ>ㄱ’ 등이고 겹받침의 경우 ‘ㅃ>ㅂ’, ‘ㅆ>ㄱ’, ‘ㄹ>ㄹ’, ‘ㄹ>ㄱ’ 등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새터민의 경우 우선 ‘ㅌ·ㅈ·ㅊ>ㅅ’의 재구조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체로 표준 발음과 비슷한데 ‘ㅌ>ㅊ’의 재구조화가 눈에 띈다. 다음으로 ‘ㅋ>ㄱ’의 재구조화가 ‘ㅍ>ㅂ’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흘받침의 경우에는 단어에 따라 재구조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표준 발음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겹받침의 경우에는 새터민의 대다수가 재구조화를 경험하지 않아 표준 발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뵤’만이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율(%)	
	끝-을	ㅌ
ㄷ		54.1
젓-이	ㅈ	100
꽃-이	ㄷ	91.6
	ㅌ	8.3
무릎-을	ㄲ	78.2
	ㄴ	21.7
부엌-에서	ㄱ	4.1
	ㅋ	95.8
값-이	ㅂ	100
뭇-을	ㅍ	100
흙-이, 닭-을	ㄹ	83.3
	ㄱ	16.6
여덟-이다	ㄹ	29.1
	ㄴ	70.8

□ 두음 법칙

표준 발음은 의존 명사나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에서 ‘ㄹ’과 ‘이, 야, 여, 요, 유, 예’ 앞의 ‘ㄴ’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이 경우에도 ‘ㄹ, ㄴ’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발음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새터민들이 표준 발음과 다르게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로동, 력사, 레철, 녀자, 녀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 역사, 예절, 여자, 염려’ 등의 표기를 보면서 발음할 때에는 문제가 적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들을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제보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상의 구두 발화에서는 이것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새터민 발음의 큰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조와 억양

□ 성조

표준어의 운율 유형은 강세 악센트(stress accent)이며 그것도 말 토막의 음절 수, 음절 구조, 음장 등의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제1 음절 혹은 제2음절에 강세가 놓이는, 즉 강세규칙에 의해서 강세가 부과되는 고정(fixed) 강세 악센트이다. 반면에 새터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경방언의 운율 유형은 고저 악센트(pitch accent)라는 점에서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인다. 더군다나 단어마다 고유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고저를 예측할 수 없는 자유(free) 고저 악센트이다. 어쩌면 이러한 운율적 차이가 새터민 발음의 가장 큰 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터민의 고저 실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가 고조).

강세 유형		단어	음절별 강세 실현율			
표준말	새터민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HL	HL	구름	61.5	35.9		
		나이	94.9	5.1		
		안개	94.9	5.1		
		우산	84.6	15.4		

		파리	97.4	2.6		
LH	LH	가슴	7.7	92.3		
		거미	17.9	82.1		
		나라	15.4	84.6		
		내일	17.9	82.1		
		노래	12.8	87.2		
HLL	HLL	고양이	590	28.2	10.3	
		무지개	64.1	15.4	17.9	
		사마귀	48.7	28.2	23.1	
		도깨비	71.8	25.6	2.6	
LHL	LHL	떡꼬리	5.1	87.2	7.7	
		사나이	5.1	69.2	25.6	
		가운데	0	94.9	5.1	
LLH	LLH	고사리	2.6	17.9	76.9	
		바가지	0	20.5	76.9	
		바구니	2.6	25.6	71.8	
		주머니	0	30.8	69.2	
LLLH	LLLH	비렁뱅이	0	10.3	25.6	53.8
		아부재기	5.1	12.8	38.5	35.9
LLHL	LLHL	아주버니	5.1	7.7	53.8	28.2
LLHL	LLHL	두루마기	5.1	5.1	74.4	12.8

위의 표에 정리된 어휘들은 표준말의 강세 유형과 동일한 강세 유형을 보여 주는 제보자가 많은 것들이다. 말하자면 남한의 강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들 어휘에 대한 강세 교육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 정리된 어휘들은 표준말의 강세 유형에서 벗어나는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2음절어와 3음절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마지막 음절을 고조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강세 유형		단어	음절별 강세 실현율			
표준말	새터민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LL	LH	메밀	12.8%	87.2%		
		바람	5.1%	94.9%		
		보리	12.8%	87.2%		
		하루	20.5%	79.5%		
		나물	7.7%	92.3%		
LLL	LLH	손가락	7.7%	15.4%	79.5%	
		휘파람	15.4%	12.8%	71.8%	
		진달래	2.6%	30.8%	64.1%	
		가락지	0.0%	28.2%	71.8%	
LHL	LLH	코끼리	5.1%	38.5%	53.8%	
		손가락	7.7%	17.9%	74.4%	
		개구리	2.6%	28.2%	69.2%	
		눈망울	5.1%	23.1%	69.2%	
LHLL	LLHL	아주머니	5.1%	10.3%	53.8%	28.2%
LHHL	HLLL	할어머니	46.2%	2.6%	25.6%	15.4%

이들 강세 유형은 어휘 발화 시 새터민 발화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음절을 고조로 실현하는 어휘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Ⅲ. 새터민을 위한 표준 발음 프로그램 개발

1. 전체 진행

새터민들의 발음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터민을 위한 표준 발음 교육 항목들을 선정하고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교재를 먼저 집필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했다. 온라인 콘텐츠는 ‘엘릭스’라는 회사에서 담당했다.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단행본 교재는 100부 제작했으며, 온라인 콘텐츠는 CD의 형태로 1,000부 제작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새터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쉽게 표준 발음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끝? 꼴?
2. 언 감자? 온 감자?
3. 시장? 식장?
4. 마디? 마지?
5. 소립? 솔립?
6. 락성대? 낙성대?
7. 단어의 억양
 - 7.1.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억양
 - 7.2. 서너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억양
8. 문장의 억양
 - 8.1. 오름조와 내림조 억양
 - 8.2. 낮내림조 억양

2.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내용

1) 꿀? 꿀?

<철물점에서>

새터민: 계십니까?

주 인: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새터민: 제가 **꿀**이 필요해서요.

주 인: **꿀**이요?

새터민: 네, 맞습니다.

주 인: 아니, 이 사람아! **꿀**을 사려면 동네 슈퍼에 가야지,
왜 여길 오나?

새터민: 아니, 여기서 **꿀** 파는 것 맞지 않습니까? 왜 나무
파는 데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 인: 아~ **꿀**? 여기 있어요. **꿀**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들어? **꿀**이라고 해야지!

새터민들 중에는 '으'와 '우'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으'는 입술을 양옆으로 완전히 펴고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우'는 입술을 둥글게 내밀고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고 '으'와 '우'의 입술 모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으'의 입술 모양



<그림 2> '우'의 입술 모양

새터민들은 '으'를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기 때문에 '은'과 '운', '글'과 '굴'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우'를 발음하다가 입술을 양옆으로 펴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에서처럼 입술이 양옆으로 펴져야 '으'가 제대로 발음됩니다.

<연습 문제>

(1) 거울을 보고 발음 연습을 해 봅시다.

- ① '우'를 길게 발음하다가 입술을 양옆으로 편다.
- ② '으'를 길게 발음하다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린다.
- ③ '우'와 '으'를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발음한다.

(2) 다음의 단어와 문장을 표준 발음으로 읽어 보세요.

- ① **은/운**
- ② **술술/술술**
- ③ **들/들**
- ④ 저는 **은**수저를 사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습니다.

⑤ **들**에 나가서 산책 좀 합시다.

들이 함께 가면 어떨까?

⑥ **술술** 놀면서 일하지 마세요.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생활 속 대화>

- 전화로 직장 구하기 -

직 원: 네, 새터민 희망 취업 정보 센텡니다.

새터민: 저, 취업 자리 있나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직 원: 어떤 직종에 취업하길 원하시나요?

새터민: **특별**히 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직 원: 저희 **회사**는 다양한 업체에서 **구인**을 의뢰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터민: **그**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 원: 우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면접을 보셔야 돼요.

새터민: 아~ **그**렇**군**요. **그**럼 뭘 **준**비해 가면 되나요?

직 원: 사진 **두** 장하고 **주민**등록**등**본 한 **부** 가져오시면 됩니다.

2) 언 감자? 온 감자?

<북한 음식점에서>

남편: 여기 감자떡 진짜 맛있네.

부인: 그렇게 말이에요. 집에서 감자떡 하면 이런 맛이 영 안 나던데.

주인: 감자떡 괜찮으십니까?

부인: 아, 정말 맛있어요, 아주머니! 이건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주인: **온** 감자로 만들었습니다.

부인: **온** 감자요?

남편: 아, 통감자를 갈아서 만들었나 보네.

주인: 아닙니다. 겨울에 퐁퐁 **온** 감자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남편: 아주머니! 그럼 **온** 감자가 아니라 **언** 감자라고 하셔야죠.

‘오’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소리이고, ‘어’는 입을 벌리고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새터민들 중에는 이 두 모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표준말의 ‘어’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는 분들도 있고, 구별하더라도 ‘오’를 발음할 때 표준말의 ‘오’보다 입을 더 벌리고 발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림 4> '오'의 입술 모양 <그림 5> '어'의 입술 모양

'오'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거울을 보고 입술이 충분히 오므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를 발음할 때는 손가락이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큼 입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습 문제>

(1) 거울을 보고 발음 연습을 해 봅시다.

- ① '어'를 길게 발음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입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② '어'를 길게 발음하다가 입을 닫으며 입술을 둥글게 오므린다.
- ③ 입술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입을 닫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오'를 길게 발음하다가 손가락이 두 개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린다.
- ④ '어'와 '오'를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발음한다.

(2) 다음의 단어와 문장을 표준 발음으로 읽어 보세요.

- ① **고리/거리**

- ② **불/벌**
- ③ **오리다/어리다**
- ④ 밤에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문을 닫고 **고리**를 잠갔다.
- ⑤ 날이 추워 **불**이 시렸다.
장미꽃에 **벌**이 날아왔다.
- ⑥ 꼬마가 종이를 **오리**고 있었다.
꼬마보고 **어리**다고 놀려 주었다.

<생활 속 대화>

- 부드럽게 거절하기 -

직장 선배: 원해 씨! **혹시 이번** 주말에 바빠?

새 터 민: 무슨 일이신데요?

직장 선배: **혹시 이번** 주말에 나 대신 당직 **좀 서** 줄 수 있을까?
갑자기 **처**가에 일이 생**겨서** 그래.

새 터 민: 이거 **어쩌죠?** **저도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
는데요.

직장 선배: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새 터 민: 죄**송**해요. **혹시** 다음에 당직 대신 **서** 드릴 사람 **필요**하
시면 제가 대신 **서** 드릴게요.

직장 선배: 그래, **고**마워.

3) 시장? 식당?

<길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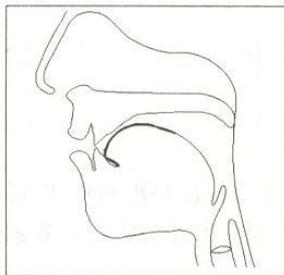
새터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물어봐야지.) 저, 실례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식당'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행 인: 식당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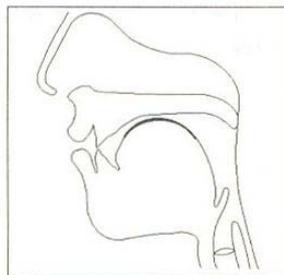
새터민: 예.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큰 '시장'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행 인: 아, 평화시장 말씀하시나 보네요. 평화시장은요. 이 길로 쪽 가다가 저기 보이는 신호등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표준말에서 '사장'의 'ㅅ'은 아랫니와 윗니를 살짝 대고 혀의 끝부분을 윗잇몸에 접근시켜 발음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ㅅ'은 어금니를 살짝 물고 혀를 입천장에 접근시켜 발음합니다.



<그림 6> 'ㅅ'의 'ㅅ'



<그림 7> 'ㅅ'의 'ㅅ'

그런데 많은 새터민들은 '사장'의 'ㅅ'과 '시장'의 'ㅅ'을 같은 음가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와 같이 'ㅅ'이 모음 '이' 앞에 나올 때는 어금니를 살짝 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접근시켜 발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ㅅ'도 'ㅅ'과 마찬가지로 모음 '이' 앞에 나올 때는 어금니를 살짝 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접근시켜 발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습 문제>

(1) 거울을 보고 발음 연습을 해 봅시다.

- ① 어금니를 살짝 물고 '시'를 천천히 발음한다. 이때 입술이 양옆으로 충분히 퍼져 있는지 확인한다.
- ② 아래 위 어금니를 살짝 떼 상태에서 아랫니와 윗니를 대고 '사'를 천천히 발음한다. 이때 입술이 '시'를 발음할 때보다 덜 퍼져 있는지 확인한다.
- ③ '시'와 '사'를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발음한다.

(2) 다음의 단어와 문장을 표준 발음으로 읽어 보세요.

- ① **살**/ **실**
- ② **씩씩**/ **씩씩**
- ③ 가**사**/가**시**
- ④ 햇볕에 **살**이 검게 탔다.
 엉킨 **실**을 풀었다.

- ⑤ 잘못했다고 **씩씩** 빌었다.
기분 나쁘다고 **씩씩** 거렸다.

<생활 속 대화>

- 부드럽게 호의 거절하기 -

후 배: **선**배님, 내일 **생신**이라면서요?

새터민: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어?

후 배: 다른 **선**배한테 들었어요. 오늘 저녁 제가 **식사** 대접 하고
싶은데, 다른 **약속** 없으세요?

새터민: **식사** 대접? 오늘 저녁 **선**약이 있는데 어찌지?

후 배: 어쩔 **수** 없지요, 뭐, 나중에 **시**간 한 번 내 주**세**요.

새터민: 좋아.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주에 **시**간 내 볼게.

후 배: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시**간 꼭 내 주**세**요.

새터민: 그래. 내가 **사**나이로서 **약속**할게.

4) 마디? 마지?

<학교 가는 길>

이 웃: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신
가 봐요?

새터민: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말이[마디]**' 데리러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 웃: **마디**요? 그게 뭔가요?

새터민: 아, 우리 큰아들 말입니다.

이 웃: 아! '**말이[마지]**'요? 큰아들은 '**말이[마지]**'라고 해야
죠.

표준말에서 받침 'ㄷ, ㅌ'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체언
토), 어미(토 조사), 접미사(뒤붙이)가 오면 'ㅈ, ㅊ'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밭이'는 [바치]로 발음되고, '말이'는 [마지]로 발음됩니다.

(1) 밭이[바치], 끝이[끄치], 솔이[소치]

밭이다[바치다], 끝이다[끄치다], 솔이다[소치다]

굳이[구지], 곧이[고지], 같이[가치], 샅샅이[샅싸치]

날날이[난나치], 말이[마지], 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물받이[물바지], 붙이다[부치다]

'ㄷ' 뒤에 접미사 '히'가 올 때에도 'ㄷ'은 'ㅎ'과 결합하여 'ㅊ'
으로 발음됩니다.

(2) 묻히다[무치다], 달히다[다치다], 굳히다[구치다]

그러나 새터민들 중에는 명사나 부사로 만드는 접미사 '이' 앞에 나오는 'ㄷ, ㅌ'을 'ㅈ, ㅊ'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발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 맏이[마디], 턱받이[턱바디]
곶이[고디], 물받이[물바디]

접미사 '이' 앞에서 'ㄷ, ㅌ'을 'ㅈ, ㅊ'으로 바꿔 발음하지 않으면 매우 어색하게 들리므로 교정해야 합니다.

<연습 문제>

(1) 괄호 안에 적은 발음이 표준 발음이면 '○'을 표시하고, 표준 발음이 아니면 '×'를 표시하세요.

- ① 턱받이[턱빠디] () ② 밭이[바치] ()
③ 굳히다[구치다] () ④ 곶이[구디] ()
⑤ 해돋이[해도지] () ⑥ 물받이[물바디] ()
⑦ 낱알이[난나티] () ⑧ 미닫이[미다지] ()

(2) 괄호 안에 표준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넣으세요.

- ① 끝이[] 보인다.

- ② 이 종이를 책 위에 붙여라[].
- ③ 연필이 어디 떨어졌는지 샅샅이[] 뒤져 봐.
- ④ 내일 아침 함께 해돋이[] 보자.
- ⑤ 그 사람 말을 곧이[] 들었던 말이야?
- ⑥ 곧이[] 가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 ⑦ 여기 미닫이문[]이 고장났어요.
- ⑧ 문이 갑자기 닫혀[] 버렸어요.

<생활 속 대화>

-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떼기 -

새터민: 우리 **맡이** 인감증명서 한 부 떼려고 하는데요.

직 원: 네, 위임장 가져오셨나요?

새터민: 네, 여기 있습니다.

직 원: 그럼 저기에 있는 인감증명서 신청서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새터민: (작성한 신청서를 내밀며) 여기 있어요.

직 원: 네, 인감도장 좀 주시겠어요?

새터민: 어!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 뒀는데, **샅샅이** 뒤져도 안 보이네요. 없으면 안 되나요?

직 원: 괜찮습니다. 대신 여기에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새터민: (지장을 찍으며) 네. 요즘 정신이 좀 없네요.

직 원: 인감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5) 소립? 솔립?

<동네 가게 앞에서>

이 웃: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새터민: 안녕하세요? 어디 가면 **‘솔잎[소립]’**을 딸 수 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웃: 소립이요?

새터민: 소나무 잎, **‘솔잎[소립]’** 말입니다. 어디 가면 딸 수 있나요?

이 웃: 아! **‘솔잎[솔립]’**이요? **[소립]**이 아니라, **‘솔잎[솔립]’**이지요. 뒷산에 가면 딸 수 있어요.

표준말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과 ‘ㄱ, ㅋ, ㆁ, ㅍ, ㅌ’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해서 하나의 복합어(합친말)를 이룰 때 ‘ㄴ’이 첨가됩니다. 예를 들어 ‘늦여름’은 ‘늦’이란 말과 ‘여름’이란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ㄴ’이 첨가되어 [느너름]으로 발음됩니다.

(4) 콩잎[콩년], 한여름[한너름], 업신여기다[업썸너기다]
꽃잎[꼰닙], 맨입[맨닙], 막일[망닐], 솜이불[솜니불]

‘ㄴ’의 첨가는 ‘ㄷ’ 앞에서보다 ‘ㄱ, ㅋ, ㆁ, ㅍ, ㅌ’ 앞에서 더 활발

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뒷말이 ‘ㄷ’로 시작하는 복합어들 중에는 첫인상[처딘상]과 같이 ‘ㄴ’이 첨가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부 새터민들의 발음에서는 / ㅈ, ㅊ, ㅊ, ㅊ, ㅊ / 앞에서는 ‘ㄴ’이 활발하게 첨가되지만 / ㄷ / 앞에서는 ‘ㄴ’이 잘 첨가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 ‘ㄴ’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맞춤법	새터민의 발음	표준 발음
솜이불	소미불	솜니불
맨입	매닙	맨닙
막일	마길	망닐
솔입	소립	솔립
설익다	서릭따	설릭따

표준말에서는 한자어 단일어 안에서는 ‘ㄴ’의 첨가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새터민의 발음에서는 뒷말이 / ㅈ, ㅊ, ㅊ, ㅊ, ㅊ /로 시작할 때 ‘ㄴ’의 첨가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경상도 방언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ㄴ’을 첨가하지 않고 발음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맞춤법	새터민의 발음	표준 발음
권유	권뉴	귀뉴
활용	활룽	화룽
절약	절략	저략
월요일	월료일	위료일

표준말에서는 앞말이 사이시옷으로 끝나고 뒷말이 ‘ㅈ, ㅊ, ㅌ, ㅍ, ㅍ, ㅍ’로 시작할 경우 사이시옷 뒤에 ‘ㄴ’이 첨가되고, 사이시옷도 ‘ㄴ’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새터민들의 말에서는 사이시옷도 발음되지 않고, ‘ㄴ’도 첨가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ㄴ’을 첨가해서 발음해야 합니다.

맞춤법	새터민의 발음	표준 발음
나랏일	나라일	나란닐
베갯잇	베개인	베갠닐
나뭇잎	나무입	나문닙

<연습 문제>

(1) 괄호 안에 적은 발음이 표준 발음이면 ‘○’, 표준 발음이 아니면 ‘×’를 표시하세요.

- ① 활용[활룽] () ② 한여름[한녀름] ()
 ③ 나랏일[나란닐] () ④ 꽃잎[꼬딤] ()
 ⑤ 첫인상[천닌상] () ⑥ 월요일[위료일] ()

(2) 괄호 안에 표준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넣으세요.

- ① 그 베갯잇[] 오늘 빨아라.
 ② 돈을 벌려면 절약[]이 최고야.
 ③ 중요한 나랏일[]을 맡았어요.
 ④ 날이 추워졌으니 솜이불[] 덮고 자.

- ⑤ 키 작다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 ⑥ 막일[]을 해서 손에 굳은살이 박였어요.
- ⑦ 꽃잎[]을 넣고 부침개를 만들었어요.
- ⑧ 송편을 찰 때는 솔잎[]을 넣어야 맛있어요.

<생활 속 대화>

-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

새터민: 통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직 원: 네, 고객님. 이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새터민에게 주며) 표시한 부분만 작성해 주세요.

새터민: 네, 여기 있습니다. **한여름**이라 그런지 날씨가 무척
덥네요.

직 원: 그러게요. **올여름**은 유난히 덥네요. 여기 빈칸에 서명해
주세요.

새터민: 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직 원: 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터민: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신청하면 **금요일**에는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나요?

직 원: 네, 물론입니다. 저희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오늘부터 이용하실 수 있어요.

6) 락성대? 낙성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친 구: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새터민: 응, 잘 지냈지.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친 구: 이사? 어느 동네로?

새터민: **락성대동**.

친 구: **락성대동**? 그런 동네도 있나?

새터민: 강감찬 장군 태어난 그 동네 말이야. **락성대**. 봉천 7동에서 **락성대동**으로 바뀌었어.

친 구: 아, **낙성대! 낙성대동**이라고 해야지.

표준말에서는 ‘라디오’, ‘라면’과 같은 외래어가 아니면 단어 첫머리에 ‘ㄹ’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새터민들의 말에서는 한자어의 단어 첫머리에 ‘ㄹ’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의 말	표준말
로동	노동
락원	낙원
래일	내일
력사	역사
량심	양심
료리	요리

새터민의 말	표준말
육체로동	육체노동
지상락원	지상낙원
감언리설	감언이설
철도료금	철도요금

표준말에서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나 복합어의 뒷말 첫머리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렬, 룰’은 모음이나 ‘ㄴ’ 뒤에서 ‘열, 율’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새터민들의 발음에서는 모음이나 ‘ㄴ’ 뒤에 나오는 ‘렬, 룰’도 ‘렬, 룰’로 발음합니다.

새터민의 말	표준말
개량	개량
하류	하류
도리	도리
나렬	나열
치렬	치열
규룰	규율

표준말에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ㄴ’이 오면 ‘ㄴ’이 ‘ㄷ’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새터민의 말에서는 ‘ㄴ’ 소리로 바뀌지 않고 ‘ㄴ’이 그대로 발음됩니다.

맞춤법	새터민의 발음	표준 발음
독려	동려	동녀
식량	싱량	싱냥
독립	동립	동닙
범률	범률	범눌

<연습 문제>

(1) 다음의 단어들 중에서 표준말인 것은 ‘○’을 표시하고, 표준말이 아닌 것은 ‘×’을 표시하세요.

- ① 력사 () ② 나무 () ③ 양심 () ④ 여자 ()
 ⑤ 로인 () ⑥ 내년 () ⑦ 룡꿈 () ⑧ 열차 ()
 ⑨ 배열 () ⑩ 이해 () ⑪ 규률 () ⑫ 냡심 ()

(2) 괄호 안에 적은 발음이 표준 발음이면 ‘○’을 표시하고, 표준 발음이 아니면 ‘×’를 표시하세요.

- ① 나열[나렬] () ② 국립[궁립] ()
 ③ 노인[노인] () ④ 양심[냥심] ()
 ⑤ 철도요금[철도료금] () ⑥ 범률[범눌] ()

<생활 속 대화>

- 백화점에서 넥타이 사기 -

새터민: 넥타이 하나 살까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직 원: 네, 고객님. 고객님께서 쓰실 건가요?

새터민: 아니요. 선물할 건데요.

직 원: 선물 받으실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새터민: **육십** 대 초반이에요.

직 원: 이런 넥타이가 요즘 **유행**인데, 어떠세요?

새터민: 이건 **연세** 드신 분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직 원: 그럼, 이건 어떠세요?

새터민: 예, **유행**도 타지 않을 것 같고, 좋네요. 그걸로 포장해 주세요.

직 원: 네, 고객님. 금방 포장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7) 단어의 억양

<자연 관찰 학습에서>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개울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관찰해 보는 시간이에요. 개울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학생들: 네~

새터민: 와! 남한에도 (‘리’를 높고 세계 발음하며) 개구**리**가 있네요. 남한에 와서 처음 봤어요.

선생님: (이상하다는 듯) 용수야, 뭐가 있다고?

새터민: (‘리’를 높고 세계 발음하며) 개구**리**요.

선생님: 아~ 개**구**리. 개**구**리를 발음할 때는 ‘리’를 높고 세계 발음하지 말고, ‘구’를 높고 세계 발음해야지. 다시 한번 해 봐, 개**구**리.

학 생: (잘 모르겠다는 듯이 ‘리’를 높고 세계 발음하며) 개구**리**.

우리가 말을 할 때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높이로 말하지 않지요? 어떤 단어는 높게 말하고 어떤 단어는 낮게 말합니다. 단어 하나를 말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높이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만일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높이로 발음한다면 듣는 사람이 매우 지루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장을 발화할 때 일어나는 소리 높낮이의 변화를 억양이라고

합니다. 음악에 가락이 있듯이 말에도 가락이 있습니다. 말의 가락을 억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따라 자음이나 모음의 발음이 조금씩 다르고, 발음 규칙도 조금씩 다르고, 억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말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억양입니다. 그래서 새터민 여러분들 중에는 억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표준말의 억양을 배우려면 단어의 억양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어의 억양을 익히고 나서 문장의 억양을 훈련하면 어렵지 않게 표준말의 억양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억양

표준말에서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보통 첫음절이 높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이 낮게 발음됩니다.

새터민들의 방언에는 표준말에서처럼 첫음절이 더 높게 발음되는 단어들도 있지만 둘째 음절이 더 높게 발음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느 음절이 더 높게 발음되는지는 방언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억양을 녹음한 다음 표준 발음과 비교해서 들으면서 어느 음절이 더 높게 발음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억양의 교정이 가능해집니다.

첫음절이 둘째 음절보다 더 높게 발음되는 단어는 표준말처럼 들리므로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음절이 높은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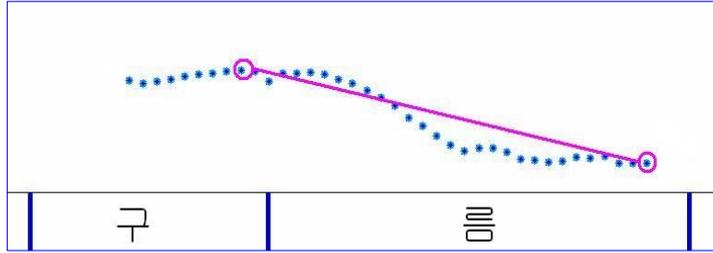


그림 8 구름(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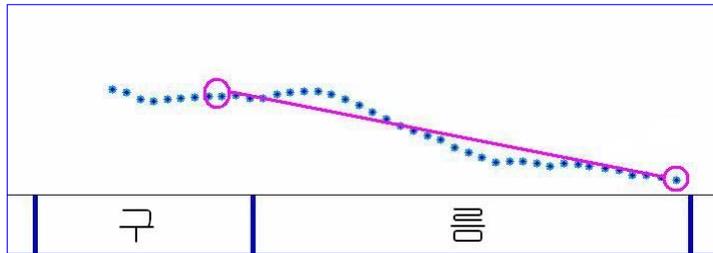


그림 9 구름(표준)

그러나 둘째 음절이 첫음절보다 더 높게 발음되면 어색하게 들리므로 교정해야 합니다.

<둘째 음절이 높은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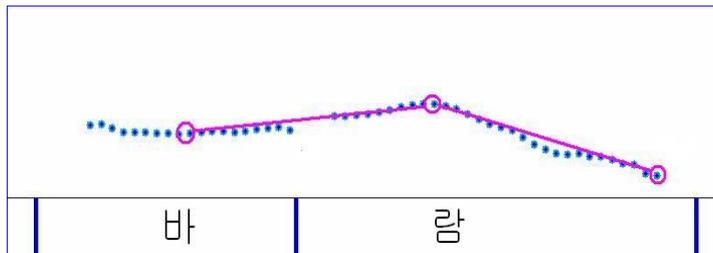


그림 10 바람(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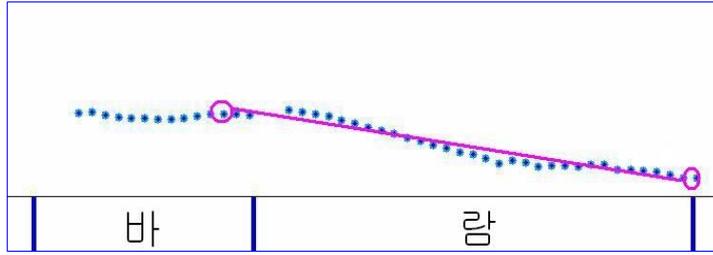


그림 11 바람(표준)

□ 서너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억양

새터민들의 방언에는 첫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단어들도 있고, 둘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단어들도 있고, 셋째 음절이나 넷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느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지는 방언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서너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억양을 녹음한 다음 표준 발음과 비교해서 들으면서 어느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억양 교정이 가능해집니다.

표준말에서 서너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보통 둘째 음절을 가장 높게 발음합니다. 첫음절이 받침을 가지고 있으면 첫음절을 가장 높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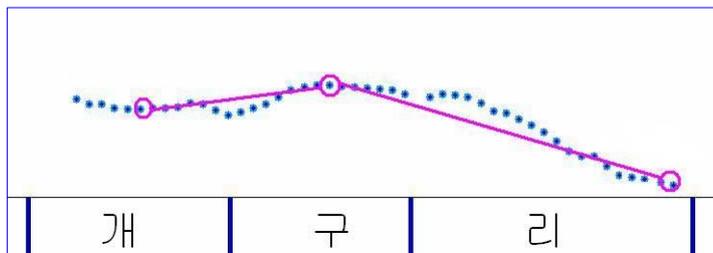


그림 12 개구리(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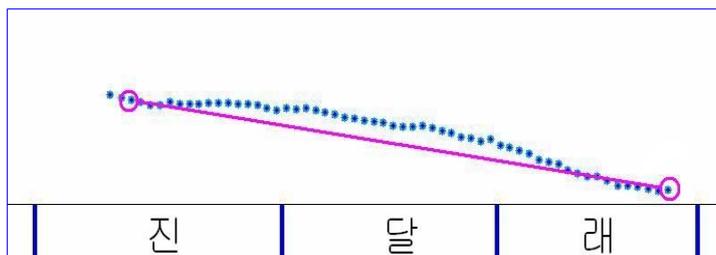


그림 13 진달래(표준)

첫음절이 높게 발음되는 단어들의 경우, 첫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표준말처럼 들리지만 첫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둘째 음절을 높게 발음해야 표준말처럼 들리므로 교정해야 합니다.

<첫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3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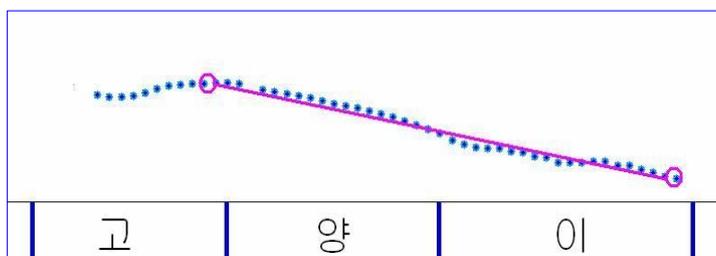


그림 14 고양이(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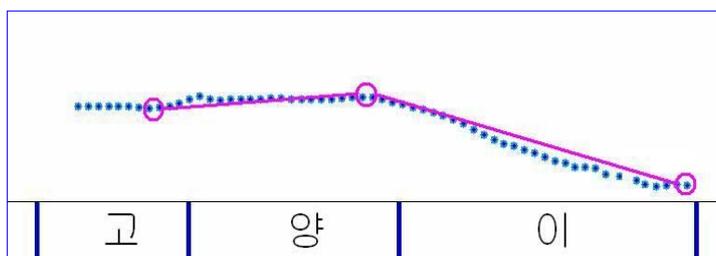


그림 15 고양이(표준)

<첫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4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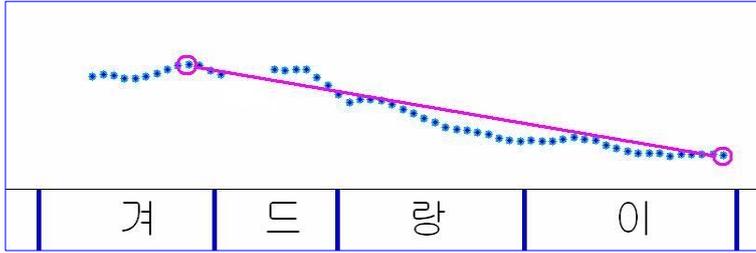


그림 16 겨드랑이(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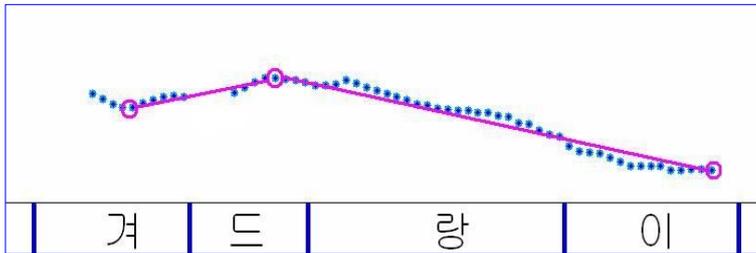


그림 17 겨드랑이(표준)

둘째 음절이 높게 발음되는 단어의 경우에는 표준 발음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3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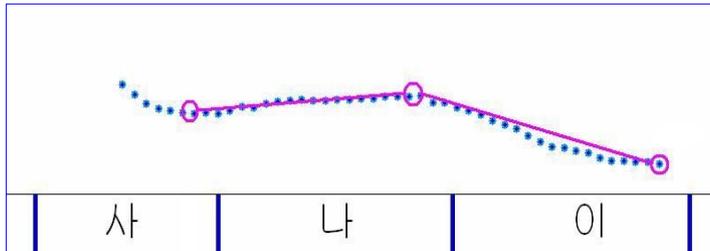


그림 18 사나이(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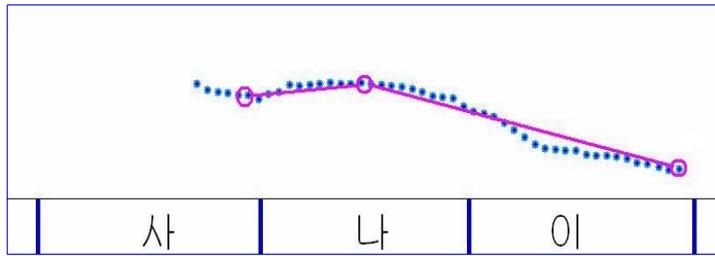


그림 19 사나이(표준)

<둘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4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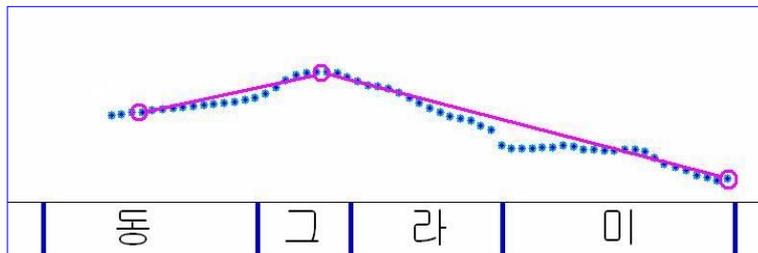


그림 20 동그라미(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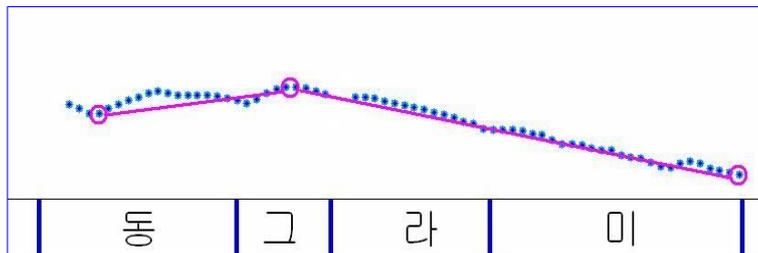


그림 21 동그라미(표준)

그러나 셋째 음절이나 넷째 음절이 높게 발음되는 단어는 매우 어색하게 들리므로 둘째 음절을 높게 발음하는 훈련을 통해 억양을 교정해야 합니다.

<셋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3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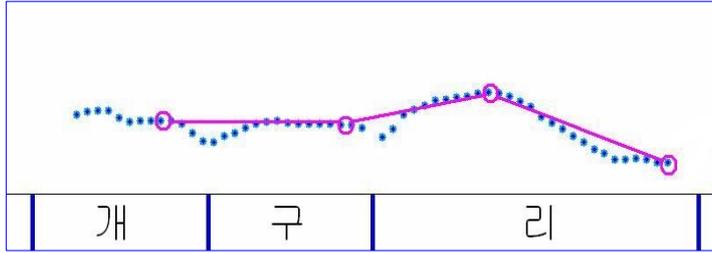


그림 22 개구리(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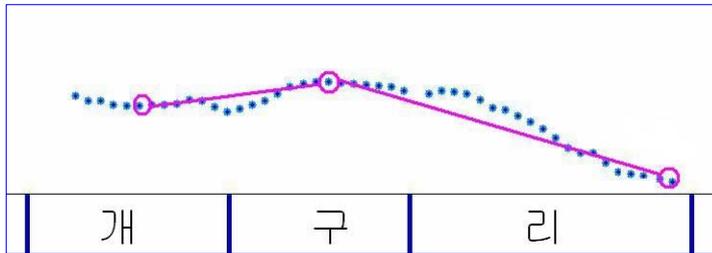


그림 23 개구리(표준)

<셋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4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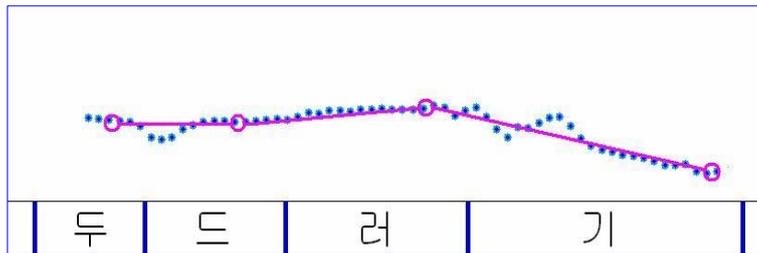


그림 24 두드러기(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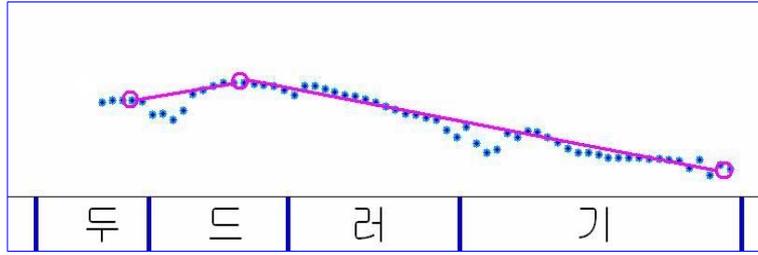


그림 25 두드러기(표준)

<넷째 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는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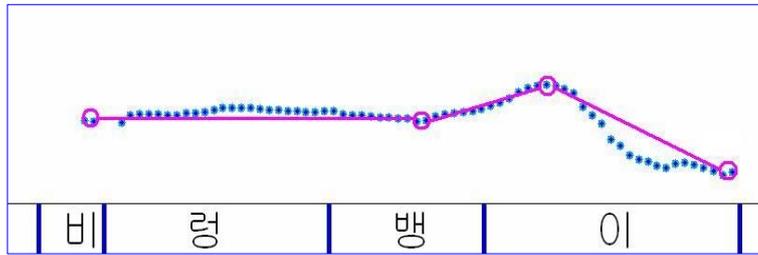


그림 26 비렁뱅이(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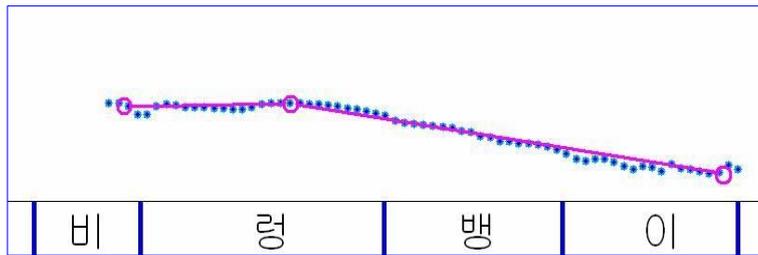


그림 27 비렁뱅이(표준)

<연습 문제>

(1) 다음의 단어들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해 보세요. 둘째 음절을 더 높게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① 구름 ② 양념 ③ 바람 ④ 소포

(2) 다음의 단어들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해 보세요. 둘째 음절을 의식적으로 높게 발음해 보세요.

- ① 고양이 ② 원숭이 ③ 손가락
④ 두드러기 ⑤ 두루마기 ⑥ 해바라기

<생활 속 대화>

- 우체국에서 소포 부치기 -

새터민: 이것 좀 **소**포로 부치려고 하는데요.

직 원: 내**용**물이 뭐예요?

새터민: 책이에요.

직 원: 보**통**우편으로 하시겠어요? 빠**른**우편으로 하시겠어요?

새터민: 빠**른**우편으로 보내면 내일 배**달**될까요?

직 원: 네, 내일 오전 중에 배달될 거예요.

새터민: 그럼, 빠**른**우편으로 해 주세요. **얼**마지요?

직 원: 5,500원입니다.

새터민: 네,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직 원: 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8) 문장의 억양

<직장에서>

사장님: 자네 몸도 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나하고 같이 퇴근하지 그러나?

새터민: 일없습니다.

사장님: 자네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투명스럽게 말하나?

새터민: 아닙니다. 전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아니, 자네 나한테 불만 있나?

새터민: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 존경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 오름조와 내림조 억양

새터민들 중에는 자신의 말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거칠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문장의 끝 음절을 짧고 낮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표준말 억양을 배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오름조와 내림조 억양부터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내림조 억양은 높게 시작해서 낮게 끝나는 억양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라고 대답할 때 높게 시작해서 낮게 끝나면 내림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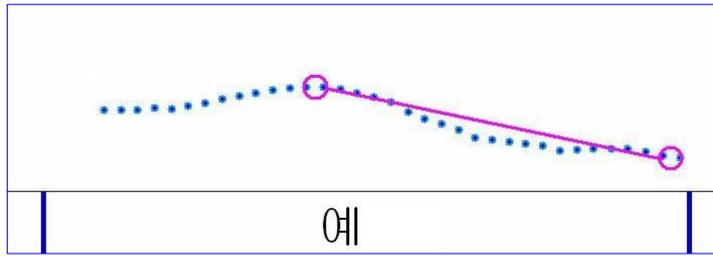


그림 28 예.(내림조)

반면에 “예?”하고 되물어 볼 때에는 낮게 시작해서 높게 끝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억양형은 오름조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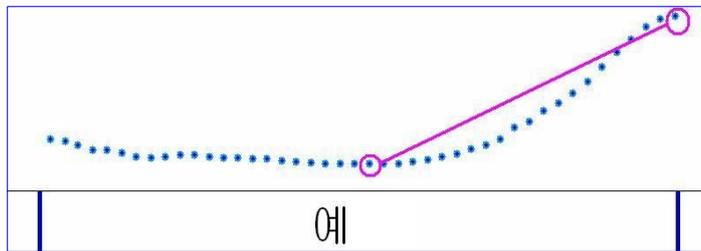


그림 29 예?(오름조)

내림조 억양과 오름조 억양은 두 음절 이상의 단어나 문장에도 있습니다.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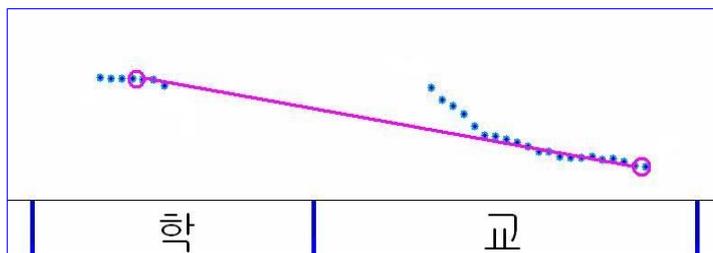


그림 30 학교.(내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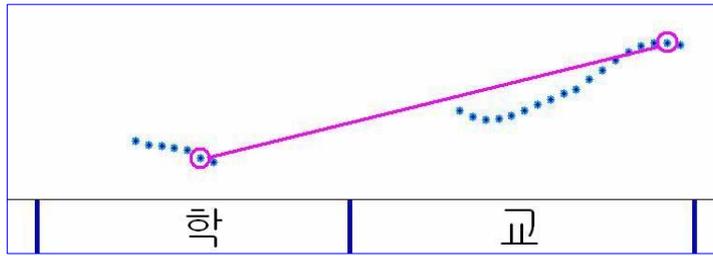


그림 31 학교?(오름조)

<세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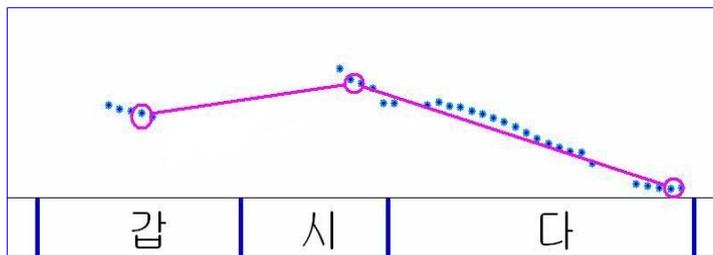


그림 32 감시다.(내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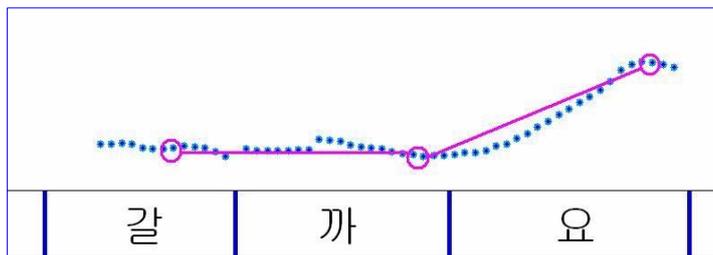


그림 33 갈까요?(오름조)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 보통 첫 번째 말토막은 오름조로 발음하고, 둘째 말토막은 내림조로 발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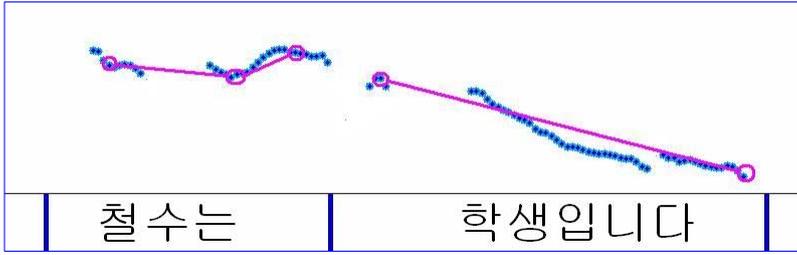


그림 34 /철수는 \ 학생입니다. (오름조 + 내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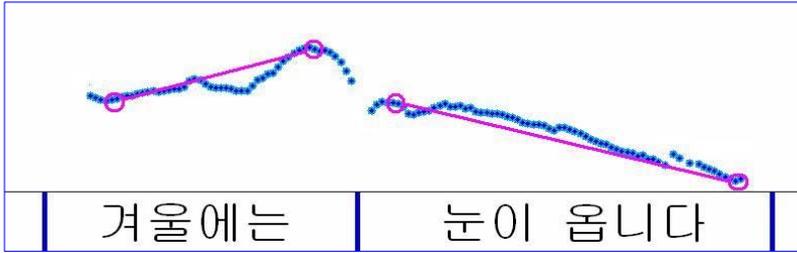


그림 35 /겨울에는 \ 눈이 옵니다. (오름조 + 내림조)

문장이 길어 세 개 이상의 말토막으로 끊어 말할 때, 마지막 말토막은 내림조로 발음하고 다른 말토막은 오름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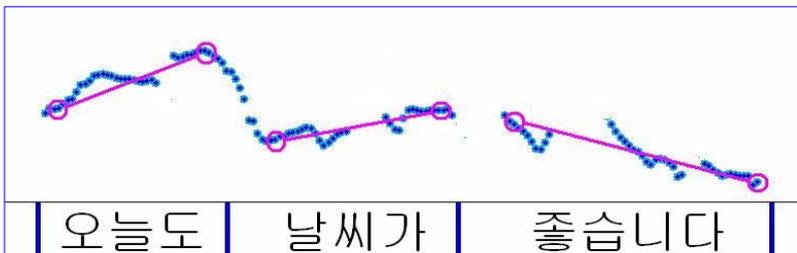


그림 36 /오늘도 /날씨가 \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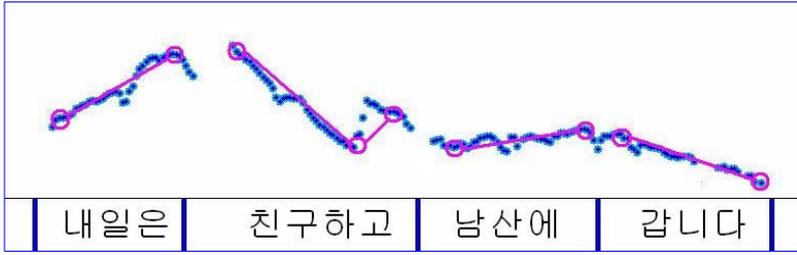


그림 37 /내일은 /친구하고 /남산에 \갑니다.

그러나 예-아니오 의문문에서는 마지막 말도막도 오름조로 받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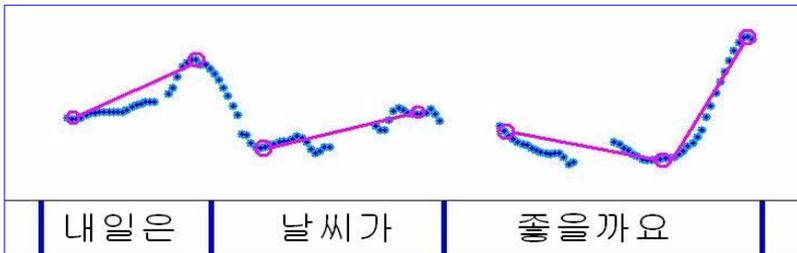


그림 38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그림 39 /내일 /저하고 /노래방에 /가시겠어요?

□ 낮내림조 억양

표준말에서는 문장의 끝음절에 중요한 억양형이 없습니다. 끝음절을 단조롭게 낮게만 발음하면 무뚝뚝하게 들리거나 심지어는 화가 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끝음절을 조금 올렸다가 내려서 발음하면 매우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립니다. 앞 음절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해서 낮게 끝나는 억양형을 낮내림조 억양이라고 합니다. 낮내림조 억양은 표준말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억양형이므로 잘 익혀서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죄송합니다.

\물 좀 주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찍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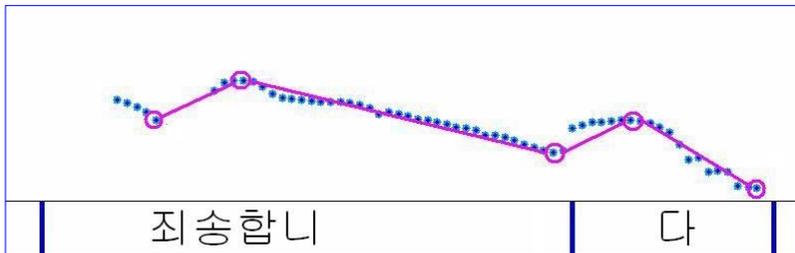


그림 40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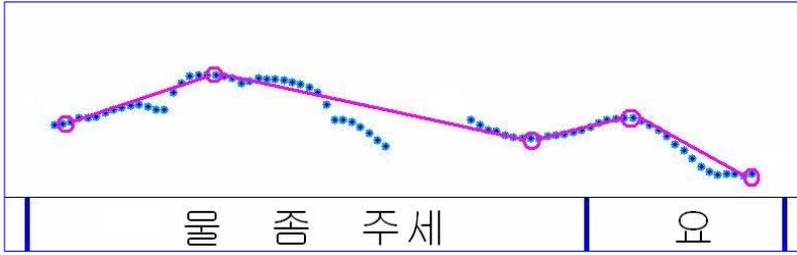


그림 41 물 좀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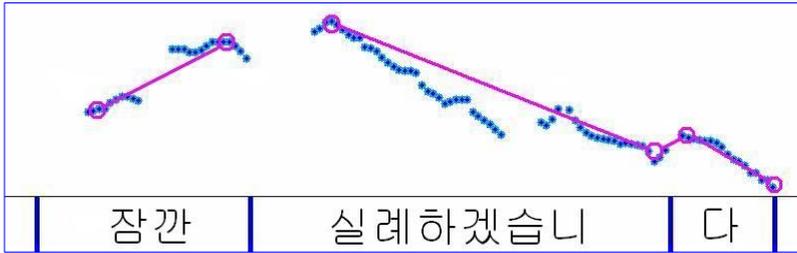


그림 42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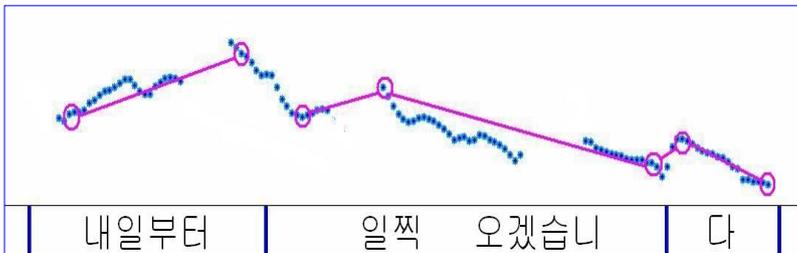


그림 43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표준말의 억양은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지만 7장과 8장에서 배운 억양형을 반복해서 익히고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새터민 여러분들의 말씨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표준말에 더 익숙해지면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억양형들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습 문제>

(1) 다음의 문장들을 표시된 억양으로 발음해 보세요. 오름조와 내림조 억양에 주의해서 발음하세요.

- ① \갑시다.
- ② /갈까요?
- ③ /철수는 \학생입니다.
- ④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4) 다음의 문장들을 표시된 억양으로 발음해 보세요. 끝음절을 낮내림조로 발음하세요.

- ① \죄송합니,다.
- ② \물 좀 주세,요.
- ③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 ④ \어디 다녀오셨어,요?
- ⑤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생활 속 대화>

- 기차표 구매하기 -

새터민: 대전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직 원: 3시 30분 KTX 열차표가 있는데, 이걸로 드릴까요?

새터민: 네, 그걸로 주세요. 얼마가요?

직 원: 21,400원이에요.

새터민: 여기 30,000원요.

직 원: 감사합니다. 여기 기차표하고 거스름돈 8,600원입니다.

새터민: 현금 영수증, 가능한가요?

직 원: 예. 가능합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새터민: 010-2733-3927입니다.

직 원: 현금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